

5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486장 ·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시편 31편 9-16절 | 다같이

주의

나를

”

9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¹⁰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 버렸고, 뼈마져 녹아 버렸습니다.¹¹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¹²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¹³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¹⁴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¹⁵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¹⁶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시편 31편은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런 ‘탄식 시’가 많은데, 시인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며 감사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시는 곧 노래이고, 기도이고, 신앙고백이며, 찬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문1) 고통과 근심 때문에 시인은 일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10절)

질문2) 대적들이 시인의 생명을 빼앗기로 음모를 꾸며도 시인은 어떻게 결단하나요?(14절)

말씀묵상 | 인도자

말씀적용 | 다같이

1. 고통이나 고난의 원인이 외부나 타인보다 내 안에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영적 침체(영혼의 어두운 밤)를 극복해 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합심기도 제목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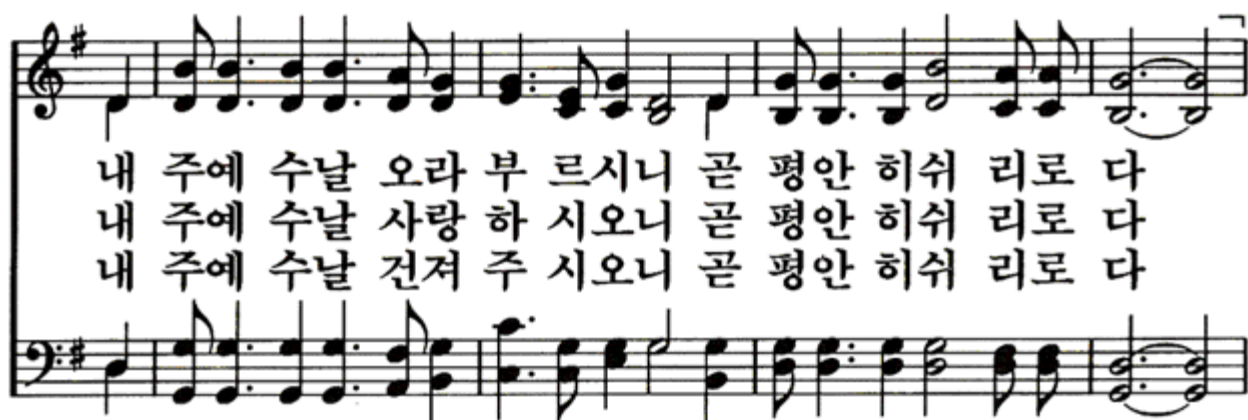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

486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통일 474)

보통으로



1.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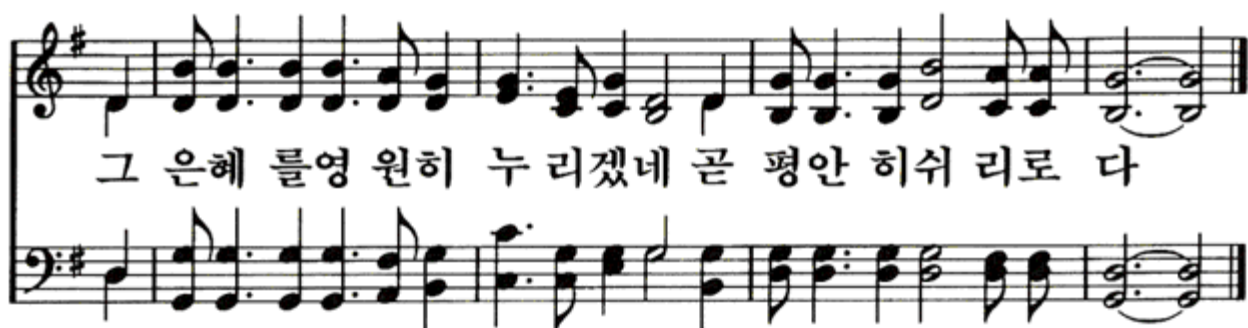


내 주에 수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 하시리로다
 내 주에 수날 사랑 하시오니 곧 평안 하시리로다
 내 주에 수날 전져 주시오니 곧 평안 하시리로다

후렴



주에 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하시리로다